

광주·전남 특수교사·요양시설 AZ 백신 접종 잠정 연기

정부, 혈전 연관성 살핀 뒤 주말에 재개 여부 발표... 남구·서구 '화이자' 접종은 계속

광주와 전남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특수교육·보건교사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혈전' 논란이 제기된 AZ백신을 당초 계획대로 접종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특수교육·보건교사와 장애아보육·간호인력 등에 투여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연기했다"고 밝혔다.

유럽의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혈전·백신 전문가와 유럽 의약품청(EMA) 결과 등을 검토해 AZ백신과 혈전 발생 연관성을 살핀 뒤, 이르면 9일께 안전성과 접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부터 진행하려던 특수교육 종사자·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전 문 교직원·간호인력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일정을 연기했으며, 요양시설과 병원 등의 65세이하 접종도 보류했다.

다만 광주 서구와 남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에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화이자 백신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내의 동향 및 이상 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주말 중에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재개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에서 '안전성', '과학적 근거'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한 만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과학적이고 안전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질병청이 이번 주 여러 혈전, 백신 전문가와 유럽의약품청(EMA) 결과를 검토하고 접종 재개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추진단은 당초 8~9일 시작될 예정이던 특수학교 종사자 등에 대한 접종 일정을 잠정 연

기한 상태다.

이는 유럽 각국에서 접종 후 희귀한 혈전 사례가 연이어 보고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4100명 등 국내 특수학교 종사자와 유치원·초중고교 보건교사,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 14만 2000여명의 접종 일정이 연기됐으며, 만 60세 미만 접종도 보류됐다.

추진단은 다만 지난 7일 유럽의약품청(EMA)의 발표를 근거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은 '유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추진단은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한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접종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드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 질환은 백신 접종 의 이상 반응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접종자 및 의료인의 인지·조기 발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8일 오전 광주시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실 입구에 보건소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블 나면 이렇게 대처해요 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중흥어린이집에서 북구청 민방위팀 직원들과 아이들이 화재대피훈련을 하고 있다. 이 훈련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 학생 피해 주는 전남대 의학계열 입학 전형 시정을”

광주시교육청·고교 진학 담당자 등 전남대 항의 방문

전남대가 의·치·약학과 등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해 지역 범위를 전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고교 진학 담당 관계자들이 전남대를 항의 방문했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진학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대입지원관, 광주지역 고교 교장

대표, 진학 부장협의회 회장 등 5명은 7일 전남대를 방문해 의학 계열 지역인재 전형 지역 범위에 전복을 포함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전남대가 의학 계열 지역인재전형과 관련해 지역 범위를 전복으로 한정하는 상황에서 전남대가 지역 범위에 전복을 포함함으로써 광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입학과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주·전남·북 대학은 호남권 범위내에서 학칙으로 지역인재 전형 지역을 정할 수 있다"며 "전남대에 광주전남을 지역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 입학과정은 전북대가 지역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경우 전남대의 지역 범위를 광주전남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동구 내지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선정

수질 정화 식물 식재 등 주민 참여형 사업 진행

광주시 동구 내지천(1.8km)이 환경부가 공모한 '2021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 및 실개천의 복원을 통한 하천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동구는 광주 자치구 중 최대 사업비인 7900만원을 확보해 ▲도랑 물길조성 ▲수질정화식물 식재 ▲민관공동 환경정화 활동 등 지속적인 관리로 수질 및 수생태계를 회복시켜나갈 계획이다.

내지천은 지난 2013년 마을오수 유입 등을 이유로 하수정비 사업을 시행했으나 주변 농경지 산재 및 고사목 방치, 녹조발생 등 수질문제를 겪고 있어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 2월 19일 내지마을 주민 대표와 내남지구 진아리채 대표, 광주환경운동연합, K-water영산강보관관리단과 함께 '주민참여형 도랑살리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 참여기관은 내지천 인근 마을환경 개선 및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기여하고,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도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함께 훼손된 도랑을 복원·관리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될 내지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온라인 민방위 교육 실시

광주 북구, 24시간 수강 가능

광주시 북구는 2021년 민방위 교육을 스마트 민방위 교육(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북구가 주수자인 전체 민방위 대원이 온라인 교육 대상이다.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 8월 1일부터 9월 15일, 10월 1일~11월 15일까지 3차례 걸쳐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이며 1시간 분량의 동영상상을 100% 시청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하면 교육이 완료된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24시간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대광새마을금고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요가·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